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박 재 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성 종 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주제어 : 근대화, 산업화, 산업경관, 도시재생, 근대문화유산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산업유산’이란 용어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속속 등장하며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시대적 배경 및 환경의 차이는 있으나 과거 1950년대 유희 공간 및 산업시설물에 대한 영국의 사회적 반향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산업유산과 관련한 정책과 계획은 과거 문화재 제도의 ‘보존(Preservation)’과는 달리 ‘보전과 활용(Conservation)’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테이트 모던 뮤지엄, 독일의 뒤스부르크 노드파크, 중국의 따산즈 예술구 798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유산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주요한 자산으로써 도시재생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문화자원 발굴과 지방자치제도와 맞물려 여러 관련 사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유산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실상 ‘한국의 산업유산이란 무엇일까?’란 원론적 물음을 던져 본다면 오히려 답변하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산업유산을 언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의, 주로 1960년 이전의 2차 산업과 관련한 공장, 창고, 광산 등의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서구 유럽식의 산업혁명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는 유효하지 않으며, 최근의 국외 산업유산 정의를 살펴보면 선사시대부터 근래의 항공우주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 대상 또한 공업만이 아닌 농업, 상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통용되는 정의와는 사뭇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래용어인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 産業遺産)이 결과론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국내에 수용하고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용어의 시작과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념정의에 따라 보전 대상의 선정과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의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와 보전 노력에 앞서 산업유산에 대한 개념 고찰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산업유산이란

* 교신저자, 이메일: jssung@snu.ac.kr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산업유산 용어의 초기 발생과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변천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논의의 지점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양과 역사적 환경이 다른 인근 일본과 중국에서의 산업유산 개념 수용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유산 개념 정의, 한국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유산의 시간적 구분과 대상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관련 연구는 1980년대 초 까지 영국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음에 따라 영국의 초기 문헌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외 미국, 호주, 스페인, 일본, 중국, 태국 등의 주요 개념 정의를 검토하였다. 국외 주요 연구로 용어의 기원 및 정의 관련한 Rix(1955)를 시작으로 Green(1963), Hudson(1965), Buchanan(1969, 1972), Butt(1968), Raistrick(1972), Minchinton(1981), Alfrey and Putman(1992), Palmer and Neaverson(1994, 1998), Jones(1996), Falconer(2006) 등이 있으며, 그 외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산업고고학 협회 학술지, 산업유산보존국제위원회(TICCIH), 세계유산협회(UNESCO)의 보고서와 현장 등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산업유산 관련 개념 및 정의 관련 연구는 加藤康子(1999), 古田陽久 古田眞美 (2001; 2006), 清水慶一 (2008), 伊東孝(2000) 등과 문화청, 경제산업성 발간물이 주를 이룬다.

국내 산업 문화의 유산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에 다수 진행되었으며 최근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연구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한 강동진(2003; 2010), 산업생태학적 관점에서 정의한 남지현(2009),

산업유산과 재생에 관한 성종상(2005), 산업의 협의적 관점에서 정의한 전영훈(2010) 등의 연구가 있다.

2. 국제적 산업고고학, 산업유산의 개념 정의

최근 국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산업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고고학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역사적 과정과 용어 정의를 살펴볼수록, 산업유산은 태생적 특성에 의해 그 이해와 개념 정의가 점점 모호해짐을 알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국제기념물유적보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의 2003년 니즈니 타길 헌장(Nizhny Tagil Charter) 내 기재된 산업고고학, 산업유산의 정의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몇 가지 지점에서 아직 논쟁거리를 남겨두고 있다.

2.1. 산업고고학, 산업유산¹⁾의 성립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신석기, 철기시대의 변화만큼 중세유럽에서 일어난 에너지 이용, 상거래의 혁신적 변화는 18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점차 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고 의미 깊은 변화를 유발하였다. 특히 제조업(Manufacturing)에 있어서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 영향을 끼쳤다(니즈니 타길, 2003). 그 결과 영국은 현재 약 60% 이상의 도시경관이 새롭게 변모되었으며, 한국 또한 1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사이 경험

1) 산업유산 관련 개념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초기 연구는 영국에서 발표되었다. 영국에서는 산업고고학과 산업유산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의 설명에 있어 부득이 의미가 분기되기 전까지 산업고고학, 산업유산을 함께 병기하였다.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67

[표 1] 산업기념물, 산업고고학 및 산업유산 관련 정의

구분	내용	주체
산업기념물 (Industrial Monument)	건물이나 고정된 구조물을 말하며 특히 산업혁명기간에 조성된 것을 말한다. 개별 또는 초기의 공장이나 기계장치와 연계되어 존재하며, 산업의 시작과 발전, 기술의 과정을 잘 알려주며, 통신수단도 포함	IAMMW(1969) ²⁾ * Raistrick, 1972:20 재인용
산업고고학 (Industrial Archaeology)	과거 산업 및 통신과 관련하여 남겨진 물리적 유물에 관한 발견(discovery), 기록(recording) 및 연구(study)하는 학문	Hudson(1963)
	산업화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기술적(technolog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 발전(social development)의 물리적 증거를 연구하는 학문	AIA(1960's) * Jones, 2006:4 인용
	초기 산업화에 의해 남겨진 것을 기록, 연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고고학의 갈래로서 야외 연구, 기록, 발굴을 수행함	Green(1963)
	초기 산업 활동의, 특히 산업혁명의 기념물, 대상지와 구조물을 해석하고, 선정된 사례를 기록, 보전하는 것	Rix(1967)
	고고학의 한 갈래로써, 과거 인류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남겨진 물리적 증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시간적 범위는 확장되어 초기 선조들의 노동하는 삶도 포함한다. 예로 선사시대의 부식물 채석장도 포함함	Raistrick(1972)
	과거 산업사회의 물리적 유산을 발견, 기록,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	Butt and Donnachie(1979)
	과거 산업화의 폭넓은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써 구조물과 인공물을 연구하는 체계적인 학문	Palmer and Neaverson (1998)
	과거로부터 남겨진 중요한 산업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을 말하며, 두 번째 역할은 산업유산을 보다 잘 기록하기 위한 것	Westin(2001) * 스칸디나비아
	산업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인공물, 층위와 구조물, 거주지, 자연, 도시경관의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 증거를 여러 분야의 제휴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러한 방법은 과거의 산업화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임	Nizhny Tagil (2003)
	과거의 물질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산업화시기를 주로 다루나 엄격히 말하면 선사시대부터 가장 최근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제조업과 채굴과 관련한 기술, 교통, 건물 등 산업화와 관련하여 남겨진 것을 기록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	Wikipedia(2010)
산업유산 (Industrial Heritage)	최근의 산업화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발전의 증거물	Palmer and Neaverson(1998)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건축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의 유산을 말함. 이는 건물, 기계, 공방, 공장 및 방앗간, 탄갱 및 정제장, 창고, 저장고, 에너지 생산, 전달, 수송하는 것과 그 모든 인프라, 그리고 주택, 종교예배, 교육 등 산업에 관련되는 사회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를 포함	Nizhny Tagil(2003)
	공업화(근대화)에 공헌하여 온 산업관련 결과물, 기술 등과 이를 지원하였던 운하,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총칭하는 개념	강동진(2003)
	사회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산업의 총체적인 것	스페인문화유산 기구(2008)
	과거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산업과 관련한 건물과 유물을 주로 다루는 문화유산의 한 관점	Wikipedia(2010)
	산업혁명 이후의 공공업 유산을 말하며 광의적으로 농업, 수산업, 상업을 포함 할 수 도 있음	Wikipedia, Japan(2009)
	산업계에서 활약한 유물이나 유산을 말함	일본, 산업유산 데이터(2009)
인류의 노동과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역사적, 사회·문화적, 미학적, 교육·학술적, 과학·기술적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의 유산을 말함. 시간적 범위는 인류의 시초부터 현재까지로 한계를 짓지 않으나 근대적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대이전과 근대이후로 확연히 구분됨. 근대 이후의 유산을 일반적으로 산업유산으로 통칭함.	연구자(2011)	
공업유산 (工業遺産)	난징조약 이후 조성된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건축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문화의 유산 단 제조업, 채굴업 등의 공업관련 시설로 한정	중국, 白青鋒 (2008)
근대화유산	에도막부 말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건설되어 일본의 근대화에 공헌한 산업·교통·토목과 관련되는 건조물 (근대/산업·교통·토목)	일본, 문화청 (1990)
근대화 산업유산 ³⁾	에도막부 말기, 메이지부터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공장, 탄광 등의 산업 건조물, 제조품, 제조 기기와 교육 매뉴얼 등 일본 산업 근대화에 공헌한 유산	일본, 경제 산업성 (2007)
근대 문화유산	개화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건축물, 기념물, 구조물 등 우리의 삶과 함께 했던 근·현대 시기의 문화적 소산	한국, 문화재청 (2001)

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1950년대 영국에서는 철거위험에 처한 산업혁명 시기의 산업문화의 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의 근거에는 민주주의의 성장과 시민운동인 풀뿌리운동(Grass Roots)이 있었으며(Falconer, 2006), 도시재생이라는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산업고고학(Industrial Archaeology)이란 용어는 Dudley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쇄물이 작성되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55년 Rix의 버밍엄대학 성인 대상 강의에서부터였다. 이후 산업고고학에 대한 대중적 인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59년에는 산업고고학과 관련하여 CBA(Council for British Archaeology) 주도로 첫 번째 협의회(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영국의 산업고고학은 BBC 심야 텔레비전 연속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높았다(Raistrick, 1972). 이처럼 초기 산업고고학의 성립은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보다는 대중적 관심과 인기 속에서 비전문가들 주도로 성장하였고 학문과 취미의 경계에서 혼재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체계화 되어 산업고고학이란 전문분야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는 Bath University, Leicester University, Sheffield University,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등 다수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문 과정으로 연구되고 있다.

산업고고학은 1960년대 이후 점차 국제적으로도 확산되어 AIA(영국, The Association for Industrial Archaeology), SIA(미국, The Society for Industrial Archaeology),

CILAC(프랑스, French Comité d'information et de liaison pour l'archéologie, l'étude et la mise en valeur du patrimoine industriel) 등 여러 국가에서 관련 학회가 설립되었고, 아시아에서도 1977년 JIAS(일본, Japan Industrial Archaeology Society)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그 외 유럽지역을 통합하는 E-FAITH(The European Federation of Associations of Industrial and Technical Heritage)가 설립되었고, 1973년에는 산업유산 관련 국제적 기구인 산업유산보존국제위원회(TICCIH,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Conservation of the Industrial Heritage)가 설립되었다. 당시 영국의 아이론브릿지(Iron Bridge) 협곡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으며, 이후에도 에센의 트르페라인 탄광군, 페르 크리겐 제철소, 비에리치카 암영갱 등 다수의 산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왔다. 2003년 7월에는 ICOMOS의 기준을 토대로 UNESCO의 승인을 받아 '산업유산 니즈니 타길 현장'을 러시아 공화국 우랄에서 공표하였다. 이를 통해 TICCIH는 UNESCO의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산업유산은 세계문화유산에 있어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ICOMOS, 2004).

이처럼 산업고고학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산업고고학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업문화의 유산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립된 학문이며, 산업유산이란 주로 산업고고학의 학문적 틀 속에서 보전 대상을 지칭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서구 유럽의 경우 국내의 활용 중심 연구에 반해, 고고학적 연구가 선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산업고고학, 산업유산 개념의 확장 and 변천

1959년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혁신적

2) Inspectorate of Ancient Monument at the Ministry of Works

3) Heritage of Industrial Modernization

변화속에 만들어진 독특한 산업관련 구조물을 산업기념물(Industrial Monument)로 인정함으로써 고대 기념물(Ancient Monument)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산업유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발맞추어 Rix(1967)는 산업고고학이란 산업혁명기간의 특별한 기념물, 초기 산업구조물과 대상지등을 기록, 해석 및 보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시간적 범위를 산업혁명기간으로, 대상의 범위는 물리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고고학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기록(recording), 해석(interpretation), 보존(preservation)의 행위로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이후 산업고고학, 산업유산 정의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그러나 Rix는 자신의 정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이전에 조성된 방앗간이나, 산업혁명 이후의 혁신적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비행기, 자동차 기술 등은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외 연구자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연구를 내놓았다(Raistrick, 1972).

그리고 논쟁의 핵심은 ‘그 시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와 ‘그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로 요약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혼란은 점차 가중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시간적 범위의 논쟁과 확장

산업고고학, 산업유산의 연구는 주로 지역과 장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초기 정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Hudson(1963)은 ‘산업혁명’이라는 시간적 범위로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 지역 및 국가별 역사적 차이는 그 시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Green(1963),

Raistrick(1972) 등의 연구⁴⁾에서는 구체적으로 로마시대의 황금광산, 도로 등이 중요한 산업고고학의 대상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르네상스에서 로마시대로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였고, Burton 등의 연구에서는 선사시대의 유물 역시 산업고고학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주장함으로써(Minchinton, 1970) 산업고고학의 시간적 범위를 보다 과거로 확장하였다. 그 결과 벨기에 몬스시 스피엔누 부릿돌 채굴지 등의 선사시대 산업유산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게 되었다(ICOMOS, 2004).

이처럼 산업혁명 이전으로의 시간적 확장과 더불어 시간에 관한 또 다른 논란은 ‘최근의 과거(Recent Past)’에 관한 사항이었다. ‘과연 최근은 언제까지인가?’ 이와 관련하여 당시(1960년대)에는 통상적으로 약 30년 이전으로 동의하고 있었지만, 이는 앞서 Rix가 제기한 근래(1960년대)의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전 등의 산업문화유산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Minchinton, 1970; Raistrick, 1972; Hudson, 1963).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 현재 산업고고학, 산업유산 관련 주요 연구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시간대를 모두 포괄하게 되었다. 최근의 니즈니 타길 현장(2003)과 주요 백과사전(Britannica, 2010; Wikipedia, 2010)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표1).

(2) 대상 범위의 논쟁과 확장

산업고고학, 산업유산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또 다른 논쟁의 중심은 대상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초기에는 산업혁명의 주요한 행위와 결과물인 채굴(extracting)과 제조업

4) 당시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 장소, 시설물과 주요 기술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manufacturing)을 주요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 분포와 용어적 의미 간의 충돌은 대상의 확장과 더불어 혼란을 유발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65-69년 사이 산업고고학과 관련하여 Green을 편집장으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⁵⁾되었다. 당시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Butt and Donnachie(1968)는 스코틀랜드 지역 산업고고학 연구에서 농업과 가내 수공업업을 포함하며 그 대상범위의 확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Harvey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산업고고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농업(agriculture)만을 다루어 책자를 발간하였다. 특히 Butt and Donnachie(1968)는 농업, 수공업뿐만 아니라 전력, 초기 이주자, 직물, 야금, 도자기와 유리산업을 산업고고학의 대상으로 포함하며 그 범위를 확장시켰다. 도로, 터널, 기차와 배를 교통이란 관점에서 분류하였고, 그 외 환경인프라시설을 공공서비스 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사회고고학(Social Archaeology)'이란 항목을 추가하여 노동자 주택과 주거지, 강제노역소, 교도소, 종교시설, 레저 등을 포함하였다. 이는 초기 개념 정립에 있어 표상적 특성을 반영하여 '채굴'과 '제조업'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 대상지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단순히 개별 공장이나 광산 시설만이 아닌 보다 다양한 유산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대상의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산업이라는 용어적 특성은 앞서의 현재라는 시간적 범위와 결합되어 핵무기, 제트엔진, 우주항공 기술 등 최근의 과학기술과 산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5) E. R. R. Green은 연속기획으로 지역 중심(Scotlnad, Lancashire, The east midlnads, Derbyshire, Southern england)의 5권, 주요 시설 및 대상지(Bristol, Dartmoor, Gloucestershire Wollen mills, Stone Blocks and Iron Rails, Tarmar Valley) 중심의 5권, 그 외 산업분야(Techniques, British Iron and Steel Industry, Early Factory, Engineering industry)와 관련하여 5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Minchinton, 1981).

(3) 현상과 논란의 종합

이상의 개념 변천 과정을 종합해 보면, 산업고고학, 산업유산의 개념은 초기 정의와는 달리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 시작은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인 사건(event)에 의해 과거와 대별되어 형성된 현상, 즉 영국 등지에서 대량생산, 급격한 경제적 성장, 기술·과학발전 등을 이끌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식과 경관을 형성하며 두드러지게 나타난 제조업, 채굴업 등의 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업유산을 연구함에 있어 산업(Industry, 주로 공업)은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른 근대 산업화 양상이 확인되며 초기의 정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유사해 보이는 유럽 등지에 있어서도 덴마크, 뉴질랜드의 경우는 농업을 상업화, 기계화함으로써 산업화를 달성했으며, 구 소련의 경우는 강제노동의 이용과 기업가의 제거를 통해 산업화, 근대화를 달성(Britannica Encyclopedia, 2010)하였기 때문에 기존 정의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간적 경계가 가깝게는 현재에서 멀리는 선사시대까지로 확장되었으며, 대상 또한 제조업, 채굴업 만이 아닌 과거의 농업부터 최근의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산업, 유전공학, 항공우주 등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실상 큰 문제를 안게 되었다. 산업고고학의 태생적 특징이며 정의인 'Particularly the monument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란 기본 특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듬으로써 그 존재 의미에 혼란을 야기하였고 그 대상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확장되었다. 결국 초기의 제조업, 채굴업의 명확

한 대상에서 점차 인간의 생산활동에 의해 남겨진 흔적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경계는 다소 모호하게 변화했다.

현재 국외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정의는 이코모스 니즈니 타길 현장(2003)의 정의이며 앞서의 변천 특성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표 1). 이를 참조하여 개념을 살펴보면, 산업고고학이란 인류사회의 산업화 과정과 흔적을 기록(recording), 해석(interpretation)하고, 보존(conservation)하기 위한 학문 분야이며, 산업유산이란 산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역사적, 사회·문화적, 미학적, 교육·학술적, 과학·기술적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의 유산을 말한다. 그러나 그 대상은 산업활동을 위해 건조되었거나 이와 관련한 사회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고고학은 학문으로서, 산업유산은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인류가 노동을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로 할 수 있으나, 주요 연구 대상은 영국의 경우 혁신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전후의 시기부터이며,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문물의 수용과 복제를 통한 자주적 근대화과정의 시기 이후이고, 중국은 난징조약 이후로 볼 수 있다(표3, 4). 반면 한국은 자주적 근대화 노력과 서구, 일본의 근대적 틀이 수용되기 시작한 조선후기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선사시대의 채석장, 부싯돌 광산 등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항공우주까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주요 유산의 경우 앞서의 시간적 범위에서 제시한 혁신적 변화, 과거와 대별되어 근대 산업화를 이끌어온 대상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산업유산은 한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보다 대상 및 시간적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개념 정의, 특히 시간과 대상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대상의 형태별 분류와 관련하여 초기 연구에서는 물리적 유물(physical remains)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Butt and Donnachie, 1968)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어 무형(intangible)의 유산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니즈니 타길 현장(2003)에서는 산업유산을 물리적 대상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 기술 등의 산업문화의 모든 증거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유산만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유네스코 주요 현장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산업고고학, 산업유산 대상별 분류

유형	대상	해당 사례
유형적 (Tangible)	도시 구조	마을 가로 등 탄광마을, 황금정마을 가로구조, 길, 골목, 담장
	건축물	공장, 창고
	구조물, 설비, 기계	교각, 방직기
	기타 (재료, 수목, 색채 등)	벽돌, 산업 연관 특정 색채
무형적 (Intangible)	경관	시대별 도시경관
	기술	제련, 봉제 기술
	사진	기념 및 상징적 사진
	인물관련사항등	주요 인물의 활동, 이야기

그 대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유형과 무형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적 대상 범위는 공장, 제련소, 교량 등의 건축 및 구조물과 그 외 장소, 기계, 지도, 재료 등이 포함되며, 무형적 대상⁶⁾으로는 도시경관, 기술, 사진, 인물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표2).

6) 유형분류는 여러 관점에서 분류될 수 있으며, 본 표에서는 유형과 무형으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비록 유·무형으로 분류하였지만, 실상 인물관련, 기술과 관련한 유산에 있어 유형유산도 일부 있을 수 있다.

[표 3] 일본 산업유산, 근대화 유산의 시간적 구분과 특성

유형	시기	비고
근대화 산업유산	에도막부 말기, 메이지이신 부터 2차 세계대전 까지 (1853-77 부터, 1945)	일본은 자국의 자주적 근대화를 중심으로 근대화 유산을 구분하고 있으며, 명확한 초기 시간 구분 보다는 ‘에도막부 말기’, ‘메이지이신’으로 비교적 포괄적 근대의 시기로 규정하여, 당시의 불명확한 근대화 특성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라는 측면에 한정짓고 있어, 이후의 유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향후 시간 경계와 대상의 구분에 있어 재논의 될 여지가 있다.

3. 일본, 중국과 한국에서의 산업유산 개념 정의와 함의

본 장에서는 앞서의 산업유산 개념 고찰을 토대로, 주요한 논의의 지점이었던 시간적 범위와 대상적 범위를 중심으로 인근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의 용어 수용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참조하여 한국의 산업유산 개념 정의와 시간적 경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3.1. 일본, 중국에서의 산업유산 용어 수용과 특징

(1) 일본에서의 산업유산 개념 정의⁷⁾와 특징
일본은 산업유산과 관련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1977년 설립한 일본산업고고학회(JIAS)를 중심으로 18개의 지역별 산업고고학 및 산업유산 학회가 활동 중에 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는 문화청, 경제 산업성, 교통성, 토목학회에서, 산업유산, 근대화유산, 근대산업유산, 토목유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본 내 산업고고학, 산업유산 용어의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 자국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체적 산업화 과정이 아닌 서구문물을 수용하고, 이를 복제함으로써 내부

적 근대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는 서구(특히 영국)와 달리 제국주의 국가로서 국가주도의 전 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이끈 것으로, 서양의 일반적인 산업화, 근대화 과정의 결과물인 ‘산업유산’⁸⁾ 보다는 메이지유신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근대화를 이끈 ‘근대화(近代化)유산’으로 명명하는 것이 일본의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보다 적합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산업유산’과 ‘근대화유산’을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Wikipedia in Japan, 2010)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일본 문화청에서 공식적으로 근대화유산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그 분류에서 한계를 느껴 2005년 야츠사와 발전소부터는 근대화유산을 근대/산업·교통·토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외 경제산업성은 근대화산업유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2007년과 2009년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 575개의 근대 산업유산을 발굴하고 33개의 군으로 분류지정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내 분포하는 구체적인 주요 근대화 산업유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經濟産業省, 2007: 2009). 토목학회에서도 토목유산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목 관련 근대 산업화 시설을 중심으로, 2000년 미야기현 이시이 갑문(石井閘門)을 시작으로 매년 유산을 지정 확대하여 2009년에는 2800개소를 목록화하였다(土木學會, 2009)

위의 산업유산 관련 개념의 정의와 수용 특

7)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유산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일본 내 개념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서구의 연구 보다는 일본의 연구를 많은 부분 참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8) 산업유산의 초기정의

[표 4] 중국 공업유산의 시간적 구분과 특성

유형	시기	비고
근대 공업유산	초기 생성 단계 1840-1894	1840년 아편전쟁이후 변법유신사상을 가진 중국법, 이홍장 등과 민족자본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기술만을 도입하는 한계
	초기 발전 단계 1895-1911	1895년 중일 전쟁 패배 이후 강제적 중국문호의 개방과 이에 따른 일본 및 서양 열강에 의한 공업화의 가속화 및 관련 기업의 증가
	민간공업자본성장기 1912-1937	일본 침략세력의 강화에 따른 근대화, 공업화에서 민족자본이 배제되었으나, 청나라 마지막 황제 사후 북양군벌, 남경국민정부, 귀국표고 등에 의한 민족자본 확충, 근대공업의 자주적 발전 시작
	항일전쟁 및 회복기 1937-1949	9.18사변 이후,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원 수탈 본격화. 국민정부의 조직과 애국민족자본가에 의해 해변지역 공업시설을 내륙으로 이전
현대 공업유산	초기 사회주의 공업 1949-1965	과거 외국자본기업, 국민정부기업, 민간사영기업, 수공업기업을 사회주의로 개조함. 소련의 전문가와 함께 대형 중공업 기업 설립
	사회주의 공업발전 1966-1976	문화대혁명 이후 사회주의 공업은 복잡한 상황 전개 삼선운동으로 서남부지역에서 크게 촉진됨(제3차세계대전대비)
	사회주의공업의 대발전시기 1976 이후	중국 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시기. 공업 소유체제의 변화로 국영공업비율이 낮아지며, 산업전환 단계로 공업용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공업유산에 관한 가치 인식이 시작

성을 살펴보면, 각 기관과 학회의 특성마다 용어의 주요지점은 다르나, 서구의 산업유산 개념을 토대로 자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대화 시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념 수용에 있어 앞서 살펴본 이코모스 니즈니 타길 현장(2003) 내 확장된 개념의 산업유산 개념 보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초기 산업유산 개념이 반영되어, 근대 이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산은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농업 등의 전통적 산업유산과 항공우주, 전자 등의 비교적 최근의 산업유산은 포함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역사에서 큰 변혁기였던 ‘근대화’시기를 중심으로 산업유산을 구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항공기 산업 등이 20세기 초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과 같이, 산업화와 기술적 변화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근대화산업유산군 33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經濟産業省, 2009). 결과적으로 현재는 ‘근대화’를 중심으로 산업유산을 살펴보고 있지만, 향후 일본 산업유산의 개

념정의에 있어, 근대 이전의 전통적 산업유산과 2차세계대전 이후의 유산에 관한 시간과 대상의 확장에 대한 논의, 또는 관련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에서의 공업유산(工業遺産) 용어 사용과 특징

중국의 산업유산은 영문 표기는 동일하나, 한국, 일본과 달리 공업유산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2006년 4월 18일 중국문화국은 장수성 우시시에서 ‘중국공업유산 보호와 이용’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우시건의’를 통과하여, 공업유산을 중국문화유산의 하나로 인정하였다(白青鋒, 2008).

중국 내 사용하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니즈니 타길 현장의 산업유산 정의를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다(표1). 하지만 그 대상에 있어 근대 이후의 제조업, 채굴업 등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공업)의 대상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을 구체화, 명확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니즈니 타길 현장에 함의되어 있는 확장된 시간 및 대상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시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아편전쟁(1840)이후를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근대공업유산(1840~1949)과 현대공업유산(1949년)으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최초의 자동차 공장(1956, 장춘제일자동차공장),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발사기지(1958, Jiuquan)와 80년대 공업시설 등을 공업유산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俞孔堅, 1996). 이는 일본의 경우 비교적 근대 초기 유산을 다룸에 반해 중국은 1945년 이후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현대로 시간을 확장하여 공업유산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2003년 니즈니 타길 현장 정의를 토대로 자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업유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근대와 현대로 시기를 구분하고, 일본에서 다루지 않았던 현대적 공업유산을 포함하고 있다⁹⁾. 반면 중국의 공업유산 용어는 제조 및 채굴업 등의 ‘공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산업유산 용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공업을 제외한 산업을 불포함하고 있어, 서구 유럽에서 과거 진행되었던 대상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국은 일본이나 서구 유럽과 달리, 산업고고학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 역사보전과 도시 재생이 급격히 추진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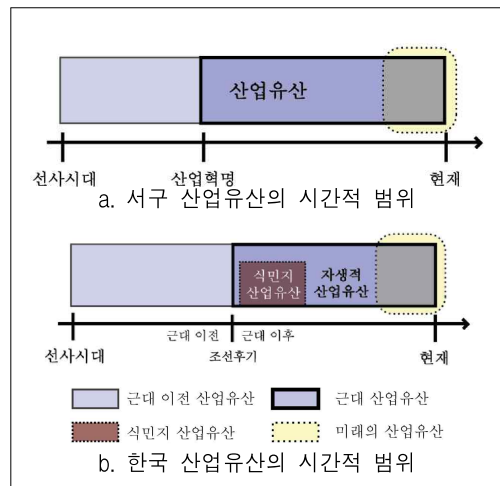
3.2. 한국의 산업유산¹⁰⁾ 개념과 범위

9) 2004년부터, 1949년 이전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된 공장, 상점, 창고, 다리 등을 보전하기로 ‘보호조례’ 마련. 상해시, 2004, ‘역사문화경관구와 우수역사건물 보호 조례’

10) 산업고고학은 학문분야임에 따라 이후에는 산업유산 용어만을 사용하며 이해에 있어 필요시 산업고고학 용어를 병기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 선유도 정수장의 공원화(2002), 강동진(2003) 등의 산업유산 보전과 개념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중국과 유사하게 역사자원 보전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영국, 일본과 같이 산업고고학적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문화재청과 건축역사학회, 도쿄모모(Docomomo), mAAN (Modern asian architecture network) 등에서 근대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관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산업유산 정의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일본, 중국과 달리 정부단위의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다만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도 내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서구 및 한국 산업유산의 시간적 범위

(1) 한국의 산업유산 정의와 함의

한국의 산업유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점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경우 영국, 일본 등과 달리 근대화 초기 식민지시기를 경험함으로써 초기의 식민지 근대 산업화와 이후의 자주적 근대 산업화라는 이중적 산업화

[표5] 한국 산업유산의 시간적 구분과 특성

구분	시기	성격	내용	사례
근대 이전 산업유산	조선후기 이전	전통적 산업유산	근대 산업화 이전, 전통적 농업, 광업, 상업 등의 산업유산. 용어상 산업유산에는 포함되나, 산업유산 시작의 주요한 특징인 급격한 근대 산업화의 함의는 담고 있지 않아, 전통 산업유산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다랭이 논, 물레 거중기(1792)
근대 이후 산업유산	조선후기 (1860~1894) 부터, ~1910	태동기, 근대 초기 자주적 산업유산	자주적 근대화화 및 산업화가 진행된 시기, 근대 산업화가 태동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함. 우정총국 등은 한국 최초의 근대 산업유산 임.	우정총국(1884) 동대문발전소(1898) 뚝섬공설상수도(1903)
	일제강점기 1910~1945	근대 초기 침략적 식민지 산업유산	철로, 역사, 항만, 창고, 제련소 등 현재 남겨진 다수의 근대 산업유산이 건설된 시기. 그러나 산업화의 목적은 일제 자원 수탈과 대륙침략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산업유산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과 해석이 필요함.	서울역(1925) 장항제련소(1937)
		근대 초기 자주적 산업유산	근대 초기 식민지배에 대한 민족자본을 통해 형성된 자주적 근대 산업유산. 역사적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음	경성정공 ¹¹⁾ (1944)
	해방이후 1945~1960년 초 ¹²⁾	공백기, 혼란회복기	식민지와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한 시기로 근대화, 산업화의 진보 보다는 혼란한 시대적 상황을 회복했던 시기	성광성냥공장 (1954)
	경제성장기 1960~1980년대	성장기, 자주적 산업유산	서양과 유사한 형태의 자주적 근대 산업화 시기 한국 근대화의 표상, 비교적 최근의 시기로 산업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아직은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개발 압력 속에 점차 사라지고 있음. 일부 식민지 산업유산과 관련되어 있음.	구로공단(1964) 울산 삼양사(1962) 포항제철공단(1968)
	1980년대~현재	-	경공업, 중화학 공업에서 정보산업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산업유산 유형이 등장하였고, 세계 산업사의 주류로 부상함.	64DRAM(1992) LCD 기술(2004)

시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도 적합한 시간적 경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근대의 정의, 산업화의 시작, 현대와의 경계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적 구분에 따라 포함되는 대상 또한 달라진다.

근대의 구분은 서양의 3분법(고대, 중세, 근대)에서 기원하며, 어원적으로 '근대(modern)'는 사멸된 문화시기 또는 퇴락의 시기 등을 함축하고 있다(차하순, 1995). 일부 분야(표5)와 앞서 살펴본 중국 사례에서는 3분법을 변형한 4분법을 토대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contemporary)는 동시대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동일하게 modernization(현대)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근대의 시간길이는 현대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현대를 구분하는 것은 모순점을 안게 된다(앞의 책,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란 전 근대적인 상태에서 근대적인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 즉 근대적이라 시대적 의미로서 근대를 특징짓는 보편적인 사회상태를 가리킨다는 관점¹³⁾(Britanica Encyclopedia, 2010)을 수용하여 근대와 현대의 구분하기 보다는¹⁴⁾, 전 근대

11) 기아자동차의 전신

12)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 1962년 울산 중화학공업단지, 1964년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 부평, 주안, 남동구 공단 건립)을 그 기점으로 볼 수 있다.

13)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4개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다.

14) 한국의 근대사 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악사와 미술사의 경우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고 있는 반면, 다수 분야

[표 6] 기술사에서 근대의 시간 구분

시간 구분	Singer (1984)	Schumpeter (1984 ¹⁵⁾)	Freeman(1988)		이원재(1997)
			시간구분	기술주도국	
약 1750년 이전	르네상스~산업혁명 (1500~1750)
약 1750~1850	산업혁명 (1750~1850)	제 1차 기술혁신 : 면직, 철, 증기기관 (1787~1842)	초기 기계화 : 면직, 운하, 고속도 (1770또는80~1830또는40)	영국, 프랑스, 벨기에	근대적공장 탄생 (1770~1870)
약 1850~1990	20세기의 문턱 (1850~1900)	제2차 기술혁신 : 철도화 (1843~1897)	증기력 및 철도 : 증기기관, 철도, 해운 (1830또는40~1880또는90)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미국	기술의혁신 (1880~1940)
약 1900~1950	- (1900~1950)	제3차 기술혁신 : 전기, 자동차 (1898~1939)	전기공학 및 엔지니어링 : 전기공학, 중화학, 합성염료 (1880또는90~1930또는40)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네델란드	전자기술의 발달 (1950 이후)
약 1950 이후	.	.	포드식 대량생산 : 자동차, 비행기, 고속도, 석유화학 (1930또는40~1980또는90)	미국, 독일, 기타EEC, 일본, 스웨덴, 스위스, 소련, 기타 EFTA, 캐나다, 호주	
			정보통신 : 컴퓨터, 통신장비, 디지털통신망 (1980또는1990 이후)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기타 EEC, EFTA, 소련 및 동유럽권, 대만, 한국, 캐나다, 호주	

와 근대 이후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앞서의 산업유산 개념 고찰에서 살펴본, 시간적 경계를 한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관점이기도 하다.

근대의 시작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보통 1860년 전국농민항쟁과 병인양요, 1876년 강화도조약, 1894년의 갑오개혁과 갑오농민전쟁의 세 유형으로 일반사¹⁶⁾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조선후기인 1860년부터 1894년까지(차하순, 1995)로 시간

의 경계를 두텁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근대 산업화는 서양보다 경계가 모호하고 다층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도 에도막부 말기, 메이지유신(1853-77년, 표3)을 두터운 시간경계로 구분하고 있어 일본의 모호한 근대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강화도 조약을 구분 지표로 한 정할 경우, 개방을 통한 식민지 근대화를 암묵적으로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으로부터 많은 서구 문화와 근대적 문물이 수용되며, 철도, 공장, 제련소 등의 근대적 산업시설이 건설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에 조선 후기부터 촉발된 자주적 근대 산업화 노력 또한 함께 진행되었음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으로 조선후기 갑신정변 당시 자주적 근대 초기 산업시설로 우정총국(1884)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살펴본 중국의 산업유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실패하

의 연구는 근대만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인평, 1999, 한국음악사의 시대구분 시론, 전통예술원; 이경성, 1998, 한국 근대미술사 서설, 한국근현대미술사; 서연호, 1994, 한국근대회곡사, 고려대학교출판부; 유민영, 1996,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출판부; 신인섭, 1998, 한국광고사; 홍금자, 2000, 근대 사회사업의 성립과 발달사적 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

15) C. Singer, E.J. 1984, Holmyard, and T.I. Williams
 16) 서구 근대의 구분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본가의 등장으로 인한 자본주의 사회의발전으로 보는 설, 둘째 민족국가의 설립시기를 근대로 보는 설, 마지막으로 반봉건시대를 근대로 보는 설이 있다

고, 미미한 움직임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자주적 근대 산업화의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표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 산업유산의 시작을 조선후기(1860-1894년)로 제안하고자 하며, 다만 산업유산의 구체적인 특수사에 있어서는 우정충국, 뚝도정수장 등과 같은 근대적 산업 시설의 초기 발생과정을 토대로 추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기보다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해 가는 상태, 즉 근대의 경계만을 구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산업유산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근대 이전의 한국 산업유산은 주로 농업 관련 전통적 산업유산이 주를 이루며, 근대 이후의 산업유산은 시간적으로 크게 4가지의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표5). 첫째, 조선 후기의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우정충국, 뚝섬 내 공설 상수도 등과 같은 자주적 산업유산이 조성된 시기, 둘째, 일제강점기 자원 및 식량 침탈 등을 위해 조성된 침략적 성격의 식민지 산업유산과 그 현황은 비록 미미하지만 자주적 움직임에 의해 조성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일제강점기의 산업유산은 한국의 산업 근대화보다는 중국 침략 및 통치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서 서양의 산업유산과는 그 현상과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이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국주의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 속에서 겪어야 했던 식민지 국가로서의 역사적 아픔, 한국의 국제적 입지, 그리고 그 성장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까지로 전후 혼란한 사회 속에서 성장한 혼란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 성냥공장, 연탄공장 등 영세 소규모 시설 등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의 경제성장기와 그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근대화, 산업화에 있어, 일제강점기 하에 조성된 식민지 산업유산이 초기의 산업화 성격을 보여주는 유산이었다면, 60-80년대의 한강의 기적, 한국 근대 산업화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새마을운동(1970), 포항제철(1968)이나 구로공단(1964)(조재호, 2011; Britanica Encyclopedia, 2010)과 이후의 산업유산은 한국 근대 산업사를 넘어서 세계 산업사에 있어 중요한 유산이라 볼 수 있다(Freeman, 1988).



<그림2> 근대 이후의 한국, 영국 제조업 관련 산업유산 유사 사례와 철거 중인 구로의 역사적 산업유산

요약하면, 한국의 산업유산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정의를 토대로, 인류의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역사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미학적, 교육·문화적, 과학·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문화의 유산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그 시간적 경계에 있어 근대의 시작을 기점으로 전통적 산업유산과 근대 산업유산, 즉 산업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등록문화재 법의 기준(강화도조약부터 최근 50년 이전)보다 확장된 시간적 경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후기를 시작으로, 근대 이후를 4단계로 구분하였고,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시기에 나타난 산업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산업유산 개념 정의의 일부 모호한 지점에 대한 궁극점에서 시작하여, 용어의 시작과 변천과정을 발생초기부터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산업유산의 개념 정의와 함의를 분석하고, 변천과정에서 드러난 논의지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한국의 산업유산을 정의하고, 한국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시기구분을 시도하였다.

개념 변천의 연구 결과, 산업유산은 국내에 통용되는 서양의 초기 정의와 달리,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대상 또한 선사시대 소금광산부터 최신의 항공우주까지로 확장되었다. 이는 2003년 이코모스 니즈니 타길 현장에서 종합되어 공식화 되었고, 이러한 개념 변천 과정을 분석하면 주요한 논의의 지점은 시간적 범위와 대상의 범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산업유산 등장의 계기가 되었던, 근대 산업화는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용어 수용 또한 각국의 역사적 특성에 따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인근 국가인 일본,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국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여 용어를 수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으로 중국은 근대 초기 자주적 근대화 시기와 1960년 이후 현대의 산업유산을 포함하고 있었고, 일본은 근대의 시작을 일정 사건이나 년도가 아닌 에도막부 말기, 메이지유신이라는 비교적 두터운 시간대로 구분하고 있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공업유산으로 대상을 한정하였고, 일

본은 근대화 시기로 시간을 한정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산업유산 개념 변천과 양국의 개념 수용 특성을 참조하여, 한국의 산업유산을 정의하면, 인류의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역사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미학적, 교육·문화적, 과학·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문화의 유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한국 근대 산업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간적 경계를 살펴보면, 근대 이전의 전통 산업유산과 근대 이후의 산업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의미의 '산업유산'은 근대 이후의 산업유산을 일컫는다. 그리고 근대 이후의 산업화는 4단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조선후기의 자주적 산업화,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산업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혼란기, 1960년대부터 80년대 자주적 근대 산업화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유산의 경우 식민지유산이란 편견을 버리고 보다 객관적이고 세계사적인 관점의 해석과 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60~80년대 자주적 산업유산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재평가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구로공단, 포항제철 등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 근대 산업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으며, 미래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주요한 산업유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Falconer, K., *The industrial heritage in Britain-the first fifty years*, La Revue pour l'histoire du CNRS, 2006
2. Rix, M., *Amateur Historian*, Birmingham University Extra-Mural Department, 1955
3. Raistrick, A., *Industrial Archaeology an historical survey*, eyre methuen, London, 1972
4. Green, E. R. R., *The industrial archaeology of country down*, London, 1963
5. Jones, W., *Dictionary of Industrial archaeology*, Sutton published limited, 2006
6. Butt, J. and Donnachie, I., *The industrial archaeology of Scotland*, Augustus M. Kelley publishers, New York, 1968
7. Butt, J. and Donnachie, I., *Industrial archaeology in the British isles*, Elek, London, 1979
8. Buchanan, A., *Industrial Archaeology in Britain*, Penguin books, London, 1972
9. Hudson, K., *Industrial Archaeology of Southern England*, August M. Kellet Publishers, New York, 1965
10. Buchanan, A., *Industrial Archaeology of The Bristol Region*, August M. Kellet Publishers, New York, 1969
11. Harvey, N., *The Industrial Archaeology of Farming in England and Wales*, Batsford, London, 1980
12. Alfrey, J. and Putman, T., *The industrial heritage-managing resources and us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2
13. Neaverson, P. and Palmer, M., *Industry in the Landscape, 1700-1900*,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4
14. Neaverson, P. and Palmer, M., *Industrial Archaeology: Principles and Practi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8
15. Minchinton, W., *Defining industrial archaeology by Walter Minchinton*. History today, London, 1981
16. Minchinton, W., *In the course of a book review in Industrial Archaeology*, 1970
17. Casella, C. E. and Symons, J., *Industrial Archaeology: Future Directions*,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New York, 2005
18. Ashmore, O., *Industrial Archaeology of Lancashire*, August M. Kellet Publishers, New York, 1969
19. Trinder, B.,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industrial archaeology*, Blackwell Ltd, Oxford & Cambridge, 1992
20. Derry, T. K. and Williams, T. I., *A short history of Technology from the earliest times to A.D. 1900*, Clarendon Press, London, 1960
21. M. Rix., *Industrial Archaeology*, The Historical Association, 1967
22. Hudson, K., *Industrial Archaeology*, University Paperbacks, 1963
23. ICOMOS, *The World Heritage list: Filling the gaps-an action plan for the future*, Paris, 2004
24. Singer, C. E.J. Holmyard, and T.I. Willams, *A History of technology*, Clarendon Press, Oxford, 1984
25. Freeman, C., G. Dosi, *Economic theory*, Printers Publishers, London, 1988
26. 加藤康子, 『産業遺産』, 日本經濟新聞社, 1999
27. 伊東孝, 『日本の近代化遺産』, 岩波新書, 2000
28. 清水慶一, 『産業遺産』, 世界遺産年報, 2008
29. 白青鋒, 『鏽迹:尋訪中國工業遺産』, 中國工人出版社, 2008
30. 經濟産業省, 『近代化産業遺産群 續33』, 2007
31. _____, 『近代化産業遺産群 續33』, 2009.
32. 土木學會, 『日本の近代土木遺産』, 土木學

- 會出版, 2005
33. 강동진,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국토계획, 38권, 2호, 2003, 7-20쪽
 34. _____, 「부산 남산창고 이대로 둘 것인가? : 산업유산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가능성 탐색」, 한국도시설계학회, 30권 2008, 59-77쪽
 35. _____, 「산업 업종별 산업유산의 자원체계 분석」, 국토계획, 44권, 2009, 173-91쪽
 36. 전영훈·신동철,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한 공공영역 구축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6권, 9호, 2010, 11-20쪽
 37. 남지현·김연진, 「산업유산군의 공생의 의미와 지역 연계적 가치」, 대한건축학회, 25권, 9호, 2009, 215-222쪽
 38. 이원재, 「근대기술사의 시기구분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 8권, 1997, 101-24쪽
 39. 김정동, 「근대 이후 서울 정동역의 변천에 대해서」, 건축역사연구, 12권, 2호, 2003, 84-112쪽
 40. 송석기, 「군산지역 근대건축물의 현황 및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20권, 2004, 237-46쪽
 41. 조홍석·구명화·김정동, 「진해지역 근대 건축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권, 4호, 2003, 125-35쪽
 42. 신재역, 『한국근대건축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43.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의 생성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44. 안재락, 『한국근대건축의 사적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45. 이상헌, 『18세기부터 1910년까지의 한국 건축의 변천에 대한 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46. 윤인석, 『한국의 근대건축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동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47. 성종상, 「산업시설 재생의 방향과 전략 연구」, 문화정책논총, 2005
 48. 오민근, 「문화도시에 의한 도시 활성화방안」, 문화정책논총, 2005
 49. 박재민·성종상, 「한국 근대 산업유산 실태 및 활용가능성 분석」, 한국조경학회 2007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초록집, 2007
 50. 한국건축역사학회,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문화재청, 2006
 51. 조재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 울산시: 울산대학교 출판부, 2011
 52. 차하순, 1995, 한국사시대구분론, 서울:소화.
 53. ICOMOS, 『The Nizhny Tagil Charter for industrial heritage』, 2003
 54. ICOMOS, 『Venice Charter,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Venice, 1964
 55. Britannica Encyclopedia, industrialization (2010. 8. 10. 확인)
 56. www.wikipedia.com, industrial heritage (2010. 5. 2. 확인)
 57. http://en.www.mcu.es/patrimonio/MC/IPHE/PlanesNac/PlanPaisajesCulturales/Definicion/DefinicionPaisCultural.html (2008. 12. 10. 확인)
 58. http://sangyou-db.jst.go.jp/top.htm (2009. 9. 5. 확인)

접수(2011. 9. 15)

수정(1차: 2012. 1. 18, 2차: 2012. 2. 15)

게재확정(2012. 2. 24)

A Study on the Definition Changing of Industrial Heritage

Park, Jae-Min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ung, Jong-Sa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is a study concerning about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industrial heritage being mentioned often lately, and considering the term's origin and changing process aiming at clarifying and improving its undertone and understanding. Especially, it's a basic study to make people understand fundamentally what industrial heritage means and differences in Korea in where any innovative affair such as industrial revolution has never occurred.

Looking into the origin and changing process of the industrial archaeology & industrial heritage terms, their concepts appear ambiguously defined due to their generational, phenomenal and terminological reason. but it's detectable that their subjects and timing range have been extended. Korea, China and Japan, the Asian nations also have gone through mainly phenomenal and terminological mess in accepting the terms.

Korean industrial heritage can define from the definition of industrial heritage in Nyzni Tagil charter. It, however, have to redefine about period of industrialization. This study suggest the 4 steps of modern industrialization in Korea and insist that we have to conserve industrial heritages not only in colonial period but also in 1960-80 industrialization in korea.

Keywords: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Landscape,
Urban Regeneration
